

총관리 역원의 임무 지명 변경

10월 2~3일에 열린 제163차 교회 반연차 대회에서 세 분의 새로운 칠십인 회장단이 지지받았으며, 세 분의 제일 정원회 회원이 명예 회원으로 되었다(전반적인 대회 진행과 9월 25일에 열렸던 상호부조회 대회에 관한 보고는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에 실릴 것임).

대관장단은 또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불렀음을 발표했다.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던 페더스토운 장로는 텍사스 델러스 성전장으로 부름받은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의 후임으로 일하게 된다.

칠십인 회장단에 새로 부름받은 분들은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와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및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이다. 이들은 현재 유럽 지중해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딘 엘 라슨 장로와 북미 중부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및 아프리카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를 대신한다.

교회 교육 기구 부교육감을 역임한 크리스틴슨 장로는 올해 64세로, 1989년 4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지역 회장, 선교부장, 본부 청남 회장단 보좌 등으로 봉사했다.

올해 54세로, 1988년 10월에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은 브러프 장로는 지역 회장, 지역 대표,

선교부장, 감독, 본부 청남 위원회 위원 등으로 봉사했다.

올해 65세로, 1989년 4월부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일해 온 헨슨 장로는 지역 회장, 스테이크 부장, 감독 등으로 봉사했다.

이번 대회에서 총관리 명예 회원이 된 분들은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야곱 디야거 장로 및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이다.

고마쯔 장로는 올해 70세로, 1975년에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로 부름받았으며, 1976년 10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받았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그 밖에 성전장, 지역 대표, 감독 등으로 봉사했다.

올해 70세인 디야거 장로는 1976년 10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받았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으며, 그 밖에 지역 대표, 선교부장 보좌 등으로 봉사했다.

피터슨 장로는 역시 올해 70세로, 1972년에 관리 감독단 제1보좌로 부름받으면서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게 되었으며, 그 후 1985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지역 회장단에서 수차례 봉사했으며, 성전장을 역임했다. □

교회에서 러시아에 원조 물자를 제공함

교회에서 기증한 16톤 분량의 피

복과 신발이 현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부되고 있다.

비아체슬라프 아이 에피모프 지방 부장은 피복 및 신발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내에 있는 교회의 10개 지부와 비보르그에 있는 2개 지부에서 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부량은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그 외에도, 교회 회원들은 노령자, 병자 및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포함하여 궁핍한 개인 및 가족들을 찾기 위해 정부 당국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에피모프 부장은 말했다.

에피모프 부장은 또 각 치수 별로 구색이 갖추어진 스웨터, 모자, 양복 저고리, 외투, 장갑 및 기타 겨울철 의류 등 45킬로 분량의 물건을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포함한 교회 회원들이 배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원조 물자를 보낸 것은 교회가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원조 물자를 보내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교회의 세계 복지/인도주의 봉사부의 책임자인 아이잭 시 퍼거슨 형제는 말했다.

“교회는 최근 수년 동안 테저렛 인터스트리 소트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산하의 모든 상점으로부터 잉여 피복을 모으는 일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피복은 자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라고 퍼거슨 형제는 말했다.

1992년 한해 동안 교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동구권에 있는 55개 국가에 보낸 물품만도 2백7십2만 킬로그램 이상이나 된다. 퍼거슨 형제의 말에 따르면 교회에

서는 1993년에도 2백7십2만 킬로그램 이상의 물품을 기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구조 및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수십 개의 단체와 협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선 기증품으로 이러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피거슨 형제는 말한다.

피거슨 형제에 따르면 교회에서는 의복과 신발류 외에도 “의료 장비, 식량 및 교육 기자재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피거슨 형제는 식량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거두어 들여 교회 창고에서 전세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지역으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

국제 소년단상을 받은 몬슨 부대관장

지난 10월 2일 제163차 교회 반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대관장단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가장 명예로운 국제 소년단상인 브론즈 울프 상을 받았다.

현재 미국 소년단 집행 위원회 위원인 몬슨 부대관장은 소년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미국 소년단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인 실버 버팔로 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소년단 임원들로부터 브론즈 울프 상을 받은, 몬슨 부대관장은 “여러 언어와 족속과 문화권에 사는 청소년들의 삶에 소년단의 훌륭한 영향

을 미치는 일을 교회가 오랫동안 도와 온 것에 관해 말씀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덧붙여서 “우리는 전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단계적으로 소년단의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

—상호부조회 봉사 활동— “평생을 바쳐”



배 윤옥 자매(청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창립150주년을 기념하여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를 모토로 모든 자매들이 봉사활동에 참여 하도록 권유받은 바 있다. 이에 순응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열심히 노력하였고 이러한 봉사를 통해 더욱 큰 신앙과 자매애를 키워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모범을 보고 자라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상호부조회에 자주 참여한 뒤 일요일 공과 시간에서 자주 봉사에 대한 공과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불우한 자, 장애자의 편이셨으며, 병들어 고통 당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으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조금씩 헌금을 내는 일 외에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항상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상호부조회와 때를 같이해 봉사 활동의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고심하던 중 시청으로 전화를 해 보면 될것 같은 생각이 떠올라 ‘가정 복지과’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한뒤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자원 봉사자 모집’이라는 글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충주 시청 인력 은행의 자원 봉사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부모없이 늙은 할머니와 살아 가고 있는 두 남매의 가정에 도움을 주도록 부탁받았습니다. 또한 충주 의료원과 건대 부속 병원에서 접수하는 일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방문할 때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봉사 활동을 하는데, 월요일은 하루 종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동안 봉사를 합니다.

최근에는 79세된 무의탁 노인 환자에게 25일 동안 잣죽과 쇠고기죽을 끓여다 드리며 그분을 위해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도

못드셨으나 이제는 밥도 곤잘 드실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고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해 주십니다.

베냐민 왕은 “평생을 바쳐 너희를 위해 봉사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스스로를 뽐내려 함이 아니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보차이야서 2:16-17)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베냐민 왕처럼 ‘평생을 바쳐’ 봉사하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많은 시간을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지상 생활은 사랑과 봉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금과 은 나 없어도

황 송아 자매(서울 선교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1991년 5월 5일 봄 기운이 완연

한 일요일, 부산 광안리 바닷가. 속칭 ‘물몬교’의 자매 선교사가 많은 사람 중 나를 향해 던진 첫 질문이었다. 나는 것처럼 긴 교회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아주 어릴 때 부터 장로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물몬교’는 익히 알고 있었다. 물론 부정적인 면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나는 장로 교회의 주일 학교 교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 지식을 필요로 했으며, 실제로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항상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수록 그분은 나에게 점점 더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졌으며, 이러한 혼란과 갈등으로 마침내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분인가도 의심하게 되었다.

자매 선교사들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만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선교사들이 전해 준 물몬경에는 내가 알고자 했던 많은 것의 해답이 있었으며, 선교사들과의 토론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나를 아주 사랑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일깨워 주었다.

교회의 복음을 공부할 수록 그것이 참되고 모순점이 없는 완벽한 것임을 깨달았으며 더이상 침례받기를 주저할 수 없었다.

1991년 6월 22일, 스무살의 나이로 주님의 계명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침례받을 결심을 했을 때, 내가 걸어가야 할 끈고 좁은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 첫번째 시험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장로 교회의 집사이셨던 어머니는 내가 말도 없이 침례를 받고 목사님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물몬교’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무섭게 화를 내셨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척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진 줄 알고 날 설득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찾아오곤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나를 보고 자매 선교사들도 함께 마음아파 하며 엘마서 32장 28절을 들려 주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씨앗이 뿌려진 상태이며 그 씨앗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을 키우라고 권유했다.

힘들었던 나날이 계속되었으나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사랑과 우정은 내가 겪은 슬픔 이상의 행복감을 안겨 주었다.

1993년, 드디어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는 나이와 자격이 갖추어지자 감독님과 접견하여 추천장을 보냈으며, 1993년 7월 1일 벤슨 대관장님께서 서명하신 부름장을 받았다.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선교 사업을 위해 출발을 준비할 때 어머니는 병으로 입원하셨고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들었다. 병석에서도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기어이 선교 사업을 나가겠노라는 나의 고집에 ‘자식 이기는 부모없다’는 옛말처럼 하는 수 없이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딸을 객지에 보내는 것이 안타까운 듯 아버지는 트럭을 손수 운전하셔서 딸의 짐을 교회 안마당까지 날라주시며 ‘건강해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다. 부모님의 마음을

집착하지 못한 바가 아니었기에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웃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행복한 선교사이니까..... 언젠가는 가족들도 나를 이해할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나는 지금 선교사 훈련원에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필요한 성품을 배우며 행복에 젖어 있다. 저녁 밤 하늘에 빛나는 황금의 모로나이상을 보며 동반자와 함께 손을 잡고 성전 뜰에 무릎 꿇으며 선교 사업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던 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6)

나는 풍요한 재벌 2세도 아니고, 다른 이들과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 운동 선수와 같은 건강함도 없고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인간은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느끼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앓은뱅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전으로 스스로 걸어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

내 생애에 단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이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가족처럼 나를 돌봐

주고 응원해 준 연산 지부 회원들과 광안 와드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할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구한다. □

동등한 사랑

강 현욱 형제(캐나다 트론토)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이 시간들이 자연의 성숙함을 더욱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 캐나다에 정착한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온 지 6개월 후 그러니까 1989년 12월 16일, 저는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성약을 맺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매주 교회에 나갔지만, 언어와 모든 풍습이 다른 저의 이민 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이곳 생활이었기에 저의 신앙을 키워 나갈 수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면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축복사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부름은 초등학교 유아반 서기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유아반에 들어가서 어지러진 장난감을 치



우는 것과 유아반 어린이들을 화장실에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저의 조카가 13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아반 어린이들과 즐겁게 보내는 가운데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차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한국인 와드가 있습니다. 저의 감독님에게 1년동안만 한국인 와드에 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의 감독님은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터운 간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인 와드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한국인 와드의 인원은 비록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대로 따르며, 그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여기에 도 번창한 한국인 와드가 정착하리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한국인 성가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크리스마스 찬송 대회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다른 스테이크에서 공연 부탁을 받을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도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보내시길 기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먼곳이지만 이국땅인 여기 토론토에도 한국인 와드가 뿌리 내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우리 말일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언어와 민족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동등히 사랑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

스테이크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

서울 북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지난 9월 4, 5일 양일간 엘마서 5장 19절을 주제로 500여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요일 신권 모임에서는 대제사 그룹과 장로 정원회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되었는데 특히 신촌 와드 대제사 그룹의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한 기증, 교환, 판매를 알리는 복지 게시판을 교회에 설치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경험을 발표하였다.

이어 실시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는 청소년의 사명과 책임,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으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보좌인 김선미 자매와 불광 와드 감독인 이호상 감독은 청소년들은 젊어서 지혜 배우기에 힘써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사명과 목표를 분명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모래내 지부에서 '주님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가정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간 한 형제님의 경우를 사례로

발표하여 참석한 회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부산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명예롭게 귀환한 서원 형제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날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은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빛을 발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이석구, 배종홍, 이재학, 김종국 형제가 장로로, 정운현, 진경섭, 하현석, 김진수, 박천일, 황규형, 이강훈, 윤영중 형제가 대제사로 각각 지지 되었다. □

.....

강서 스테이크

강서 스테이크 93년도 후반기 대회가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의 감리로 지난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강서구 화곡동 스테이크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모세서 1장 39절을 주제로 약 8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 60여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과 영적으로 충만한 연사들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새롭게 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지난 9월 11일 12일 양일간 미아와드에서는 93년도 서울 동 스테이크 후반기 대회가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토요일 오후의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시마부꾸로 장로는 “스테이크의 발전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마음, 노력을 한 곳으로 합함, 지도자에 대한 지지, 선교사를 사랑하는 것, 교회에서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셨고 모든 신권 지도자는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실행하라고 권고하셨다. 이 모임에는 거의 모든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이들의 깊은 신앙과 신권 소유자로서의 자부심, 총관리 역원에 대한 경의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 개최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을 권고하는 방법과 교회의 표준이 다시 강조되었다.

토요 대회에서는 현직 교사인 배상기 형제가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바람”이라는 주제로 얘기했고, 스테이크 부장단의 최동일 형제가 ‘부모로서 청소년의 가르침’에 대해 영적으로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해 주었다.

아름다운 합창 속에서 진행된 일요일 대회에서 시마부꾸로 장로는 “스테이크 회원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힘겨운 조그마한 것

11일 토요일 모임에서는 신권회, 여성 지도자 모임, 스테이크 특별 훈련 모임, 18세 이상의 모든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하는 일반 모임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2일 일요일 일반 총회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대회장에서 먼 지역에 위치한 개봉, 신길, 부천, 역곡, 영등포 지역 성도들이 참석하였으며, 오후에는 비교적 가깝게 위치한 화곡, 신월, 강서, 신정, 공항 지역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두성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으며, 서울 서 지역 대표인 고원용 장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걸음의 폭을

넓히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 감리자인 베이트먼 회장은 현재 한국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물어 보시며 이번 연차 대회 준비 모임에서 북한에 대한 기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땅은 앞으로 많은 회원을 필요로 하며 더욱 많은 선교사도 필요하다고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박병국 형제가 대제사로, 황범규, 홍정환, 조재운, 차민규, 김인진, 장재선, 이서우, 하태광, 홍기민, 박병주 형제는 장로로 그리고 전병기, 박한성, 김중갑 형제는 고등 평의원으로 각각 지지 받았다. □

부터 계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성취해 나가도록” 권고하시면서 각 와드, 지부에서 한 사람의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도록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지역 대표인 김종열 장로, 새로 부름받은 서울 성전의 배영천 성전장, 그리고 서울 선교부의 니콜스 부장이 참석했다. □

물몬경 초판 기증

레셀 지 마 장로(서울 선교부)

제 아버지인 지 글레이드 마도 이곳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분의 선교 지역을 사랑하셨으며, 저에게 한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선교 사업을 하실 당시 한국 교회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물몬경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니파이삼서만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어로 된 물몬경을 가져 오셨습니다.

제가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저에게 한국어로 번역된 그분의 니파이삼서책을 주셨습니다. 저의 선교 사업이 끝나가는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에 관한 자료로 이 니파이삼서를 관리

본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한국에서도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이며 제가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31년 전 제 아버지가 걸으셨던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완전히 똑같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마장로가 기증한 물몬경은 8.2cm×10.8cm 크기로 대관장단의 승인을 얻어 물몬경 완역본이 나오기 2년 전에 출판되었다.

역원 변경

- 청주 스테이크
금산 지부 지부장 이찬용 형제
(전임자: 백승용 형제)
- 천안 지방부
온양 지부 지부장 구인규 형제
(전임자: 한기용 형제)
-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감독 김영석 형제
(전임자: 반상호 형제)

조직 신설

- 영동 스테이크 분당 지부
주소: 경기도 성남시 태평3동 3582
초대 지부장: 이수환 형제



관리 본부에 물몬경 초판을 기증한 마장로

선교사 훈련원 제 156기

(1993. 2. 8~1993. 2.19)

〈성명〉

강성미 자매
권상희 자매
권수미 자매
김병희 자매
김지현 자매
박소연 자매
박영숙 자매
유미희 자매
유복상 장로
윤복순 자매
이호범 장로
조애경 자매
최서규 장로
홍정순 자매
황송아 자매

〈출신지〉

광주 S / 금성 B
원주 지방부
서울 S / 신당 W
서울 S / 화양 W
광주 S / 금성 B
서울 북 S / 녹번 W
수원 S / 권선 W
안양 S / 안산 W
동대문 S / 용두 W
서울 북 S / 홍제 B
부산 서 S / 삼천포 B
인천 S / 답동 W
서울 서 S / 노량진 W
광주 S / 송정 B
부산 S / 연산 B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부산 선교부
대전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선교부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대전 선교부
대전 선교부
서울 선교부
대전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선교부



뒷줄 왼쪽부터 : 이호범, 최서규, 윤복순, 권상희, 김지현, 황송아, 박소연, 유미희, 유복상
앞줄 왼쪽부터 : 홍정순, 강성미, 조애경, 권수미, 박영숙, 김병희